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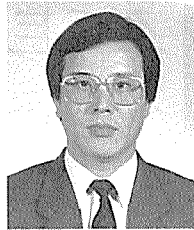
새로운 정보기술과 시스템 통합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실로 놀랄만 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이동가능한 기기들, 즉 휴대형 컴퓨터라든지 손바닥만큼이나 작은 컴퓨터라든지 또 무선전화기등이 속속 등장하면서 정보통신 서비스 측면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정보기술들은 가격대 성능면에서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고, 이미지(Image) 처리기능 및 목적지향형 프로그래밍 기능이 새로 추가되면서 변화의 폭을 더욱 크고 넓게 가져가고 있다. 편의성측면에서는 음성인식 멀티윈도 및 제4세대 언어등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해결되어 있고 경제성만이 문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90년대 중반이면 충분히 해결되어 실제로 쓸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시스템의 상호연결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PC워크스테이션은 이제 개별적 기능이나 성능은 충분히 사용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으나 상호간 정보전달이나 제공 및 효율적 데이터관리 측면에서 통신네트워크와 결합할 때 복잡한 구조로 표준화된 아키텍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분산데이터베이스 기술로 인하여 정보의 고립화는



朴尙鍾
(주)에스티엠 본부장

더욱 심화되어 정보의 공동이용이라는 차원에서 구조상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메인 호스트컴퓨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컴퓨터 시스템들이 얽혀져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환경하에서 상호연결은 이제 필수적이며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 등장하면서 통합의 해결책이 엿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공통프로토콜의 사용이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나 표준화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적용을 위한 HW, SW, 네트워크자와 응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원의 교육훈련비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이 쏟아지고 있는 여러가지 새로운 정보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既投資된 정보시스템과 잘 조화시켜 통합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상호연결 및 호환이 기업의 가장 큰 부가가치로 등장하고 있어 시스템 통합이 바로 전략정보 시스템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